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이달의 투자가이드

2026.07

하나더넥스트 이용 안내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라운지 상담 예약

QR코드로 하나더넥스트에 접속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하나더넥스트'를 구독해주세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상담 예약번호 1599 - 1478

하나은행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목차

001 이달의 투자가이드 요약

002 2026년 07월 주요 시장 이벤트

003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비중 제안 예시

004 미국주식: 반도체는 단기 과열, 시장은 무난한 추세 진행

005 유럽/일본주식: 글로벌 강세장 영향권, 특별히 과열 없음

006 중국주식: 예상보다 늦어지는 부동산 회복

007 한국주식: 반도체 외 산업으로 수급 이동 전망

008 채 권: 미국과 한국의 금리 방향, 달라지는 중

009 환 율: 환율을 하락시킬 뚜렷한 요인이 없다

010 금 / 원유: 금 장기 상승 사이클, 국제유가는 안정 예상

※ 본 콘텐츠는 경제 및 투자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 배포되는 자료로서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 및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 제시된 어떠한 예상, 예측 또는 전망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콘텐츠 저작권은 하나더넥스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 등이 금지됩니다.

HANA THE NEXT

이달의 투자가이드 요약

- 한국 증시는 반도체 외로 수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며 현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은 정부 투자 부양책, AI 소비 부양책, 물가, 부동산 가격 회복 효과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긍정적 의견 유지합니다.
-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주식시장은 중동 상황이 실질적인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가 이끄는 상승장은 진행형입니다. 미국/일본 대비 유럽 시장의 상승세는 비교적 느리지만 추세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우려만 완화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국내는 기준금리 인상, 재정 긴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금리가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자산군별 장단기 투자매력도

단기(~3개월)	투자매력도	전월대비	Key idea (긍정요인 vs 부정요인)
한국주식	★★	↓	반도체 외 주가 저평가 vs IT 기기 수요 둔화
미국주식	★★★	-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 지속에 따른 기업이익 호조
유럽주식	★★★	-	점진적 제조업 회복세, 글로벌 주식 상승 사이클 동참
일본주식	★★★	-	강력한 재정정책, 기업이익 양호, 주주친화 정책 노력
중국주식	★★★	-	물가 상승, 투자와 소비 부양책 효과
단기채권	★★★	-	미국 단기채는 괜찮고 국내 채권은 비추
장기채권	★★★	-	가격 매력과 금리를 내리고 싶은 정부 의지
달러	★★	-	금리 인상 우려 vs 유가 및 물가 안정
금	★★	-	금 가격 지지 환경 vs 상승 속도 부담 누적
원유	★★	-	중동 사태 사실상 마무리, 빠르게 예전 가격 회복 전망

장기(6개월~ 1년)	투자매력도	전월대비	Key idea (긍정요인 vs 부정요인)
한국주식	★★	-	반도체 외 실적 회복 vs 메모리 가격 하락 가능성
미국주식	★★★	-	계속되는 기업이익 고속 성장
유럽주식	★★★	-	강력한 재정정책, 제조업 회복세 재개 예상
일본주식	★★★	-	경제 정상화, 재정지출 확대, 기업이익 양호
중국주식	★★★	-	부동산 가격 상승, 소비 회복
단기채권	★★	-	가격 변동성 낮음 vs 낮은 자본이익
장기채권	★★★	-	유가/경기 하락하면 장기 금리 내려감
달러	★★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vs 미국 경기 둔화 우려
금	★★★	-	넘치는 유동성, 금융 완화 기조, 불확실성 상존
원유	★★	-	중장기적으로 공급 우위 환경 지속 전망

HANA THE NEXT

2026년 7월 주요 시장 이벤트

주요기업 실적발표

마이크론 EPS는 컨센서스를 약 20% 상회했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수익성이 개선되어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음. 15일 ASML 실적 발표부터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음.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반기 기준금리 두번 인상 예고. 7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FOMC

유가가 $70까지 하락해 미국 소비자물가 하락 전망. Fed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음

월	화	수	목	금
		1 한 6월 수출입 유 6월 소비자물가지수 미 6월 ISM 제조업 PMI 중 홍콩 휴장(반환기념일)	2 미 6월 고용보고서 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	3 미 휴장(독립기념일)
6 미 6월 ISM 서비스업 PMI 유 5월 소매판매	7 미 5월 수출입 한 삼성전자 잠정실적	8 미 FOMC 의사록	9 중 6월 CPI/PPI	10 일 6월 PPI
13 한 7월 1~10일 수출입	14 미 6월 CPI 중 6월 수출입	15 미 6월 PPI 중 2Q GDP, 6월 소비판매 중 6월 소비판매 미 연준 베이지북 미 ASML 실적발표	16 한 금통위 금리결정 미 6월 소매판매 미 TSMC 실적발표	17 유 6월 CPI 한 휴장(제헌절)
20 일 휴장(바다의 날)	21	22 미 알파벳, 테슬라 실적	23 한 2분기 GDP(속보) 한 SK하이닉스 잠정실적 유 ECB 통화정책회의	24 미 7월 S&P 비/제조업 PMI
27	28 미 CB소비자신뢰지수 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	29 미 6월 PCE 물가지수 미 FOMC 미 MS, Meta 실적발표	30 미 애플, 아마존 실적발표 미 6월 PCE 물가지수	31 일 BOJ 금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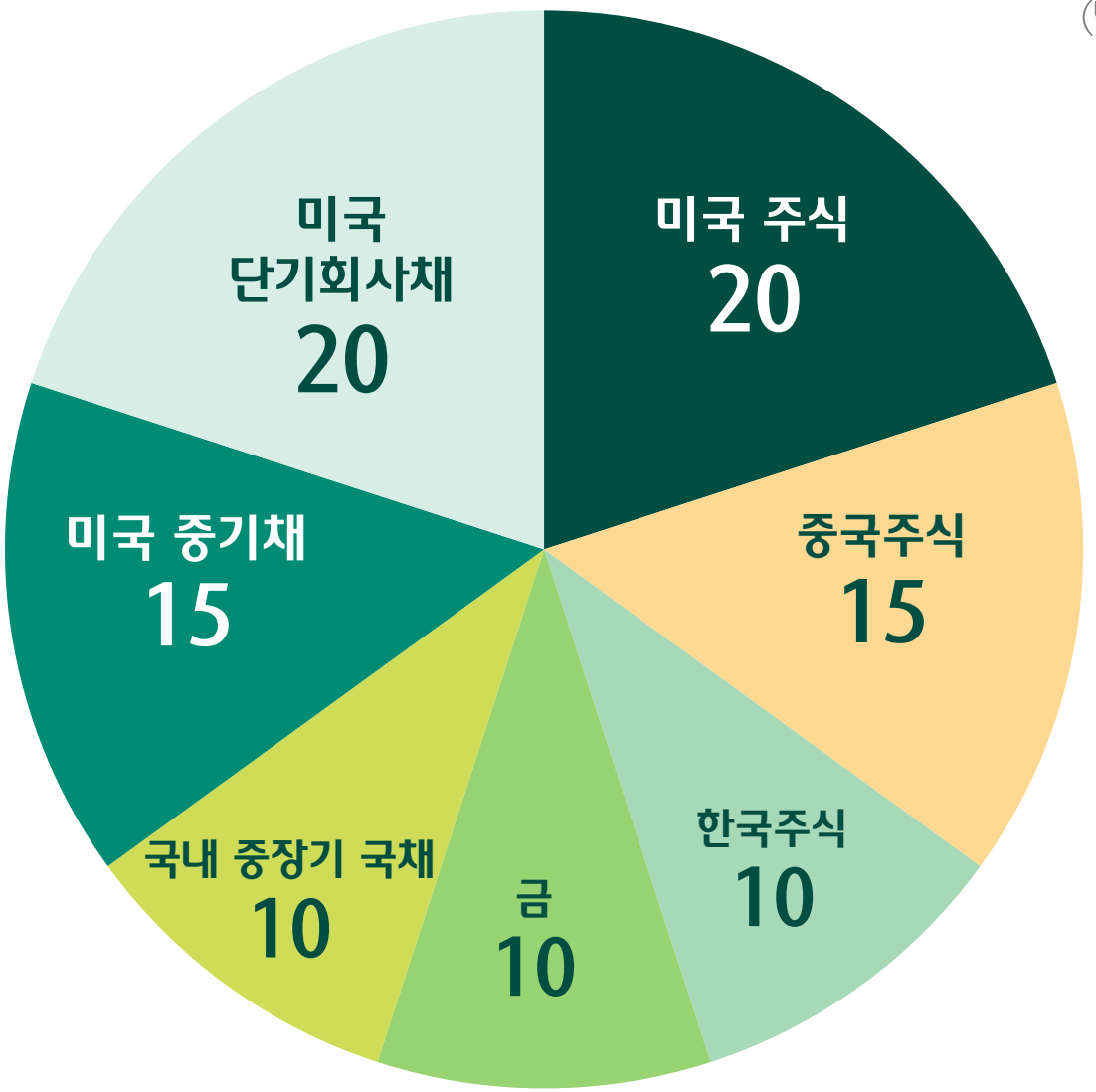
※ 한: 대한민국, 미: 미국, 일: 일본, 유: 유럽, 중: 중국, 전: 글로벌 전체

HANA THE NEXT

2026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비중 제안 예시

- 주식시장 관점에서 중동 이슈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험중립적인 성향의 투자자를 전제로 하면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 금리 수준은 채권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주식은 특별히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gold)은 굵직한 상승 사이클 진행 중이라 판단합니다.
- 채권에서는 한국보다 미국 채권의 매력을 높게 봅니다. 미국은 양호한 경제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감안 시 단기 회사채의 투자매력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전혀 없고 장기금리가 다소 과도하게 높아진 한국은 중장기채가 단기채보다 좋아 보입니다.
- 주식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에 대한 의견은 작년 하반기와 달라졌습니다. 2025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한국 증시에 비해 2026년 새로운 부양책과 소비 회복세가 기대되는 중국 증시의 기대수익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단위 %)



* 6개월 정도의 유지기간을 가정함

HANA THE NEXT 미국주식: 반도체는 단기 과열, 시장은 무난한 추세 진행

적당한 속도로 올라가는 중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동에서의 갈등 이슈에 대해서 실질적인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간의 막바지 협상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주가지수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말 수준을 넘어선 것은 이미 한참 전이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와 미국 주식

금융시장이 갖고 있었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기대감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바뀐 것은 다소 부정적인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주식은 금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지금의 상승장에서, 금리 때문에 나타난 조정 폭은 최대 10% 이내였습니다.

상당히 길게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 상승장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이끄는 **지금의 사이클은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990년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면서 주식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상승장의 기간과 지수 상승률을 90년대와 비교해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아래 그림과 표).

반도체 섹터는 상승 속도 빨라진 만큼 변동성 확대는 염두

반도체 섹터만 봤을 때는 지난 4월 쯤부터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졌으니,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최근 시장이 떨어질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변동성은 상당히 크지만, S&P500과 NASDAQ 지수의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S&P500 상승장 : 1990년대 vs 현재]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6월말

[지금의 상승장, 1990년대만큼 길게 진행될 가능성]

(단위:지수) index	1990년대 10년 상승장		2022년부터 지금의 상승장	
	1990년 10월 11일	2000년 3월 24일	2022년 10월 14일	2026년 6월 29일
S&P500	295 (5배)	1,527	3,577 (2배)	7,354
NASDAQ	329 (15배)	4,963	10,321 (3배)	25,298
필라델피아 반도체	100 (13배)	1,362	2,089 (6배)	13,204

* 필반지수 시작은 1993년 12월 기준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6월말

HANA THE NEXT 유럽/일본주식: 글로벌 강세장 영향권, 특별히 과열 없음

유럽도 전쟁 영향 극복 6월 중 신고가 경신

유럽 Stoxx50 지수도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6월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중동 전쟁 발발 전 추세를 회복한 것이고, 국가별로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AI 투자 경쟁, 그리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글로벌 전반의 위험자산 상승 사이클을 이끌고 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 인상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유럽의 금리인상은 시장이 예상한 것이었는데, 라가르드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들은 투자심리에 약간 부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ECB는 경제 전망을 조금 하향 수정하고 물가 전망은 조금 상향했습니다.

경제는 현재 주식은 미래

다만 주식시장은 경제지표에 비해 많이 선행합니다. 주식시장의 중동 전쟁이 투자심리에 끼친 영향은 사실상 없어졌고, 유가 상승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인 반면 주식시장은 늘 몇 분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기업이익은 계속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은 많은 유동성과 AI 산업 확장이 핵심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주식시장 모멘텀은 미국>일본>유럽 순

일본 주식은 유럽보다 빨리, 미국과 비슷한 속도와 추세로 지난 달에 이미 전쟁 직전의 수준을 넘어서 상승 추세를 지속 중입니다. 기업이익은 미국,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양호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 미국>일본>유럽 순으로 기업이익 모멘텀과 주식 상승 속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금리 상승세는 진정

일본에서 빨랐던 금리 상승세는 진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금리의 레벨은 주식에 위협적인 수준이라 볼 수 없고, 일본에서 금리는 일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라기보다 채권시장 혹은 엔캐리트레이드 자금 회수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 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AI

막대한 유동성과 함께 AI 산업 생태계 확장이 이끄는 글로벌 증시 환경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점하고 있는 최첨단 대규모 AI 모델이나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과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 일본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에 특화된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ANA THE NEXT

중국주식: 예상보다 늦어지는 부동산 회복

경제지표는 부진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합니다. 투자는 정부 지원으로 AI, 전력, 컴퓨팅, 통신 등에서 가속화되며 회복할 전망이지만, 소비는 이구환신 지원금 축소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식품, 등 필수소비재가 양호하고 이구환신 지원금에 포함된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 등이 전년대비 10~20% 하락했습니다.

소비 지원 발표

이를 개선하고자 상무부 등 8개 부서는 6월 18일 'AI+소비' 발전을 발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스마트 가전, 스마트홈 등 산업에 AI 도입을 지원하고 전자 기기의 AI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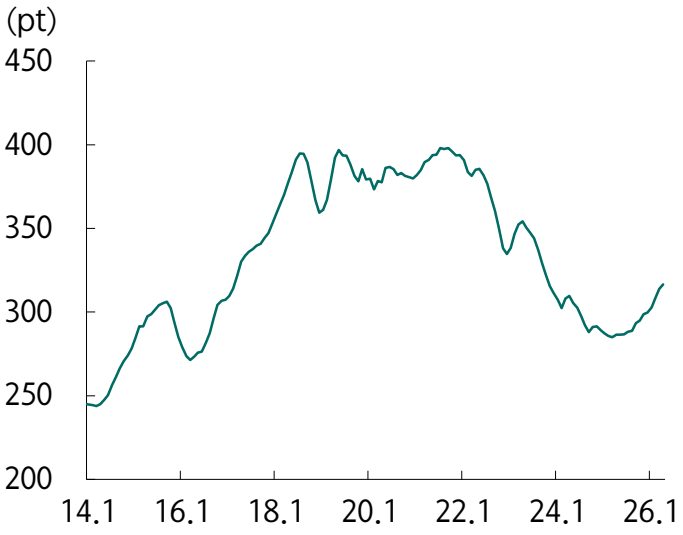
부동산 회복 전망

본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홍콩 부동산 주택가격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본토 부동산 가격이 홍콩 가격을 후행한다는 점과 과거 3년동안 부동산 재고가 상당부분 감소, 임금과 주식 자산은 상승, 금리는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은 점차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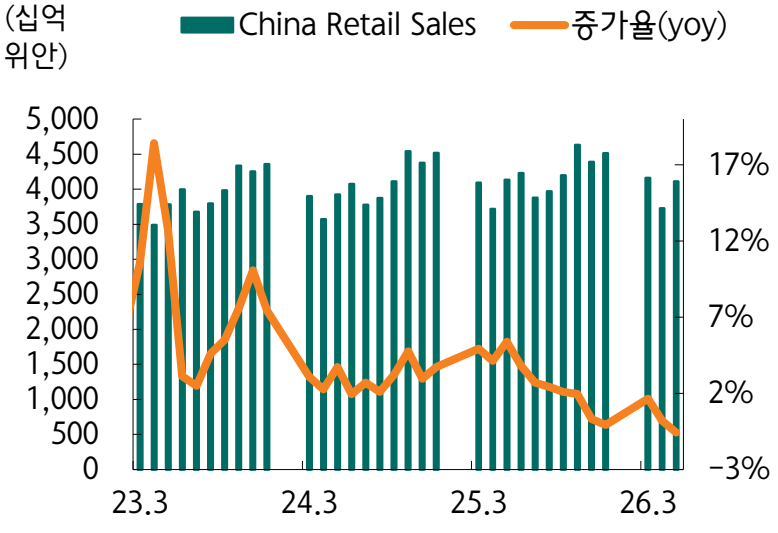
이구환신 설비 교체, AI 소비 발전 계획,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물가를 고려했을 때 중국 경기는 점차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긍정적인 의견 유지합니다.

[홍콩 부동산 주택가격 지수]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6월말

[소매판매와 증가율]



자료: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6월말

한국주식: 반도체 외 산업으로 수급 이동 전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업체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기기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제품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은 20% 이상 인상되었고 수요가 얼마나 둔화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코스피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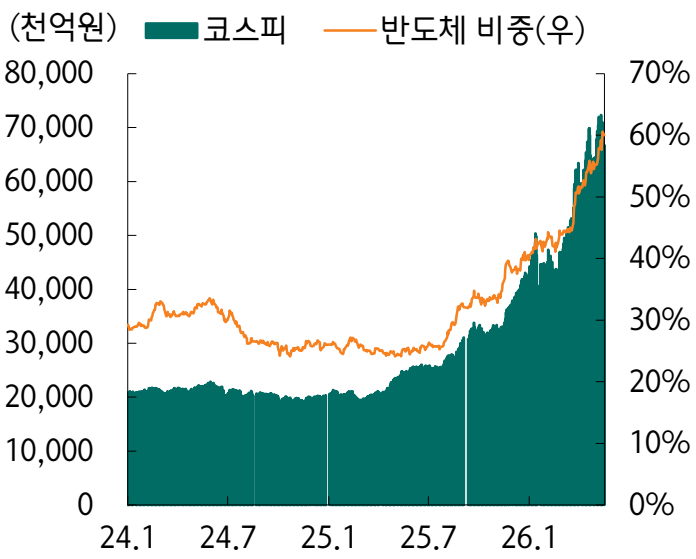
그동안 부진했고 저평가된 반도체 외 산업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급이 이동하는 동안 코스피가 횡보할지, 상승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코스피에서 반도체 비중이 25~30%에 불과했지만, 최근 반도체 비중이 60%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외 주가가 상승해도 코스피 업사이드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고 판단해 단기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며 현 시점부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환경은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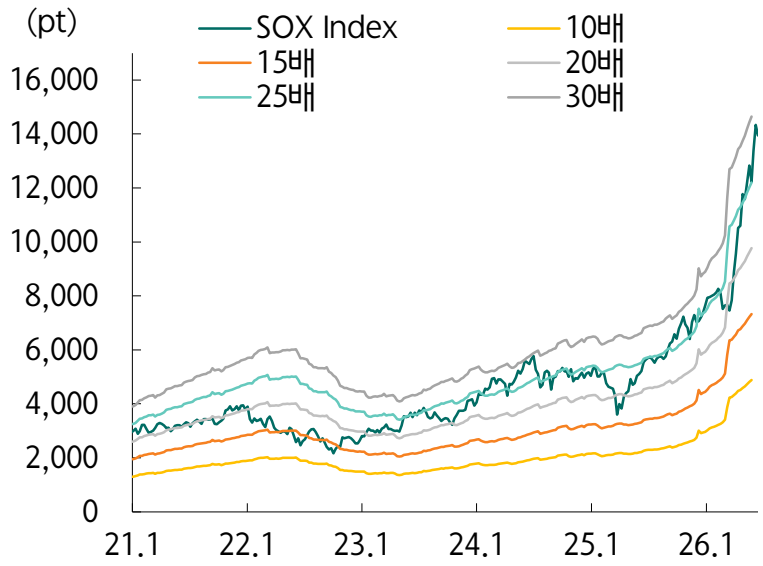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소비는 전년대비 6% 증가했고, 부진했던 고용도 회복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 외 국가들의 경기는 아직 부진하지만, 유가는 하락했고 자산 자격과 임금은 상승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 반도체 외 산업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스피와 반도체 비중]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6월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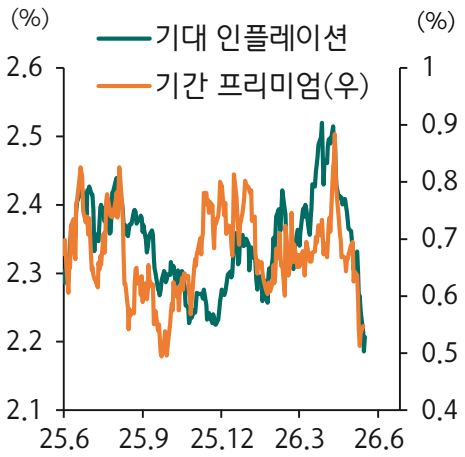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리서치팀
기준 : 2026년 6월말

HANA THE NEXT

채권: 미국과 한국의 금리 방향, 달라지는 증

국채 금리 변동 요인 세가지

미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 기간 프리미엄 +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미국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오른쪽 그림].



지금 미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세가지 이유

첫째,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유가가 서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금이 줄고 소득 증가도 정체되면서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으로 인해 고용 증가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셋째, 사모 신용 문제로 인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중 금리가 더 오르면 사모 신용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다면, 미국채 금리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금리 하락은 요원함

미국과 달리, 한국 채권 금리는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의 큰손인 보험사들이 채권 매수를 뚝 끊은 데다, 기대했던 세계국채지수(WGBI) 유입 물량마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서 만기가 긴 초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금리 상승)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은 민간이 초호황이니 재정은 긴축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 및 재정 긴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내 금리가 하락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HANA THE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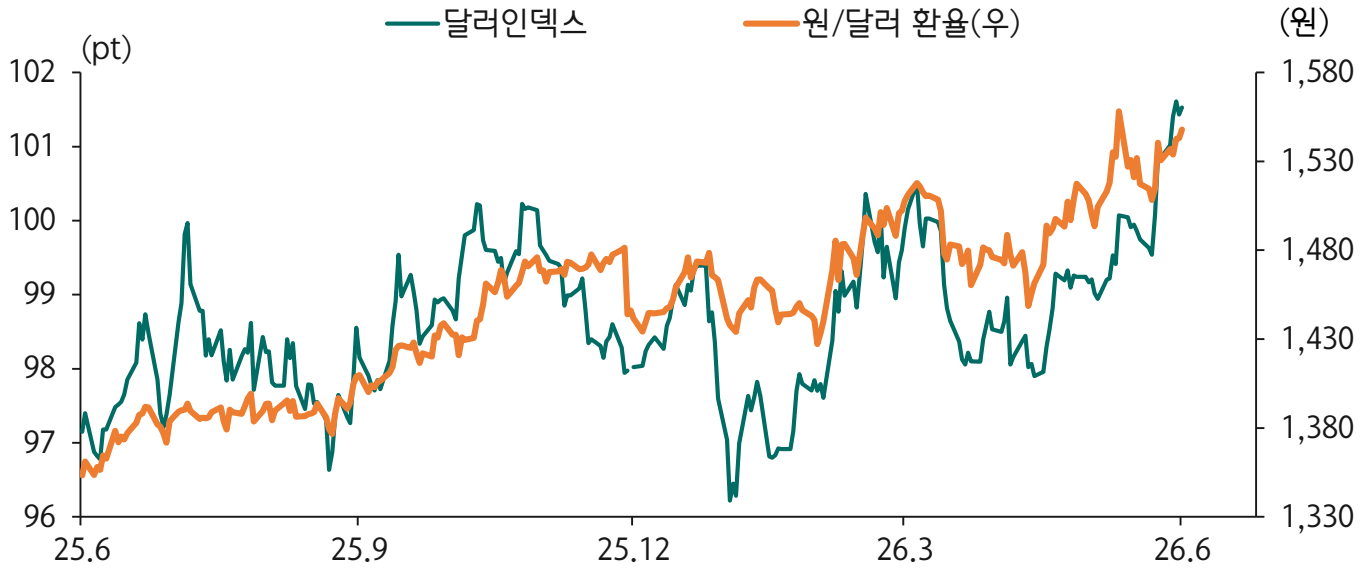
환율: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 일으켜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 이란 전쟁 발발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으며, 종전이 가까워진 지금도 달러가 강한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9월과 내년 3월, 총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장의 채권 부분에서 기술했듯이, 실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가가 하락할수록 인상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결국 미 연준 의장이 완화적인 태도(비둘기파)를 보이기 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꺾이기 어렵습니다.

높은 환율이 이어질 만한 환경

현재 반도체 수출이 크게 상승하며 경상수지가 역대급 흑자인데도 환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 민간 자본(서학개미 주식 투자 및 기업들의 직접 투자)이 금융 계정을 통해 해외로 더 크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쌓이지 않고 곧바로 해외 자산 쪽으로 유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에 따라 향후 전략사업(2,000억 달러) 및 조선업(1,500억 달러) 관련 대미 투자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로 매년 유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달러 유출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당분간 1,500원대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자료 : Bloomberg
기준 : 2026년 6월말

HANA THE NEXT 금/원유: 금 장기 상승 사이클, 국제유가는 안정 개시

유가 본격 하향 안정세

이미 지난 달부터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에 큰 틀에서 합의에 접근, Final stage에 진입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제유가는 본격적으로 하향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온 WTI 가격은 전쟁 프리미엄(?)이 사실상 소멸되었고 향후 공급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유가 상승 위험에 대한 헤지 수요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지속될 것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원유시장에 대해, 향후 1~2개월간 공급 정상화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구간이 될 것이고 배럴당 60~80달러 범위에서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제재가 조기에 면제되면서 유가가 공급 확대를 가격에 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 가격의 기간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음

금 가격의 경우 연초부터 힘을 쓰지 못하는 첫 번째 주된 이유는 차익실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상승 사이클과 달리 지금의 사이클은 실물 수요(귀금속/산업금속)보다 금융 수요(주식 위험이나 인플레 방어, 달러 의존도 감소)가 견인하는 측면이 큰데, 이것이 가격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10년 상승 사이클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최근 2년간의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금 가격을 더 약하게 만든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었습니다.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금리인상 우려로 바꿔 놓았습니다.

위 두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그리 공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에 대한 장기 상승 관점과 여러가지 근거들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1) 연준의 금리 정책을 포함,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완화적일 거라는 판단, 2)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2010년대처럼 아주 낮은 물가가 아닌 중물가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3)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4) 금의 신규 채굴량 정체, 5) 2020년 이후 전세계 시중 유동성이 두 배로 많아졌다는 점 등입니다.

※ CC브랜드 260702-0044

하나은행